인구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

Church's Concern with Population Problems

—L'osservatore Romano—

[로세 바토르 · 로마노]

■ 이글은 1974년 세계인구 회의를 앞두고 그해

3월 28일 교황청의 명망있는 국무장관인 Giovanni Villot 추기경은 세계인구회의 (World Conference on population)의 의장인 Antonio Carrillo-Flores씨와 세계인구의 해를 주관하고 인구문제 연구에 대한 UN기금의 총재인 Rafael Salas씨를 접견 하는자리에서 두사람에게 수고한 교황의 교서를 번역한 내용으로서 연구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성을 적절히 표명하고 있다. (편집자註)

■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먼저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회합에서 세계인구회의와 세계인구의 해와 연관하여 유엔기구가 여러분들에 부여한 크나큰 책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셨읍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집단의 노력을 우리 교회는 항상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8월 Bucharest에서 개최될 세계인구회의와 연관되거나 세계인구의 해에 골격내에서 조직된 많은 활동들도 우리 교회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비록 인구증가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 몇년동안 양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구속을 준다해도 세계인구회의나 세계인구의 해는 각 개인이나 인류의 욕구에 대한 세계의견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질때 교회는 교회 사명의 충실한 이유에 의해 그렇게 합니다. 이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의(all-round good) 파급을 실행하는 교회의 약속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인구란 인간, 사람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교회는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의 욕망, 존엄성 육체적 정신적 운명에 대한 계시의 창조가 된 이래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모든것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왔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해 타협하려는 모든것들에도 주의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인구증가가 세계 전체적으로 특히 몇 특정나라에서 인간사회나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필요한 자원보다 급속히 증가되는 인구로는 기아문제, 건강, 교육, 주택, 고용문제들을 해결하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인간생활의 존엄성을 고려하지않고 자연법인 하느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급진적 방법이 아니며 인간증가를 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깊은 유혹에 빠지고 있읍니다. 이런 방법들은 대개가 인간운명의 물질적 견해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방법은 (우리는 단지 해결이라 말합니다.)다음과 같은 확고한 조건이 이뤄져야 됩니다.

생활을 지배하는 하느님 계율의 존경으로서 사회정의의 요구, 인간의 자유 의지로서 인간의 존엄성

결혼한 부부에게 적당한 책임으로서 가정의 역활, (cf. populorum progress, 37 : Humance Vitae' 23, 31)

우리는 여기서 인구문제에 대한 교회입장의 기본원칙을 자세히 반복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이기본원칙은 제2차 바티칸회의와 Populorum progress and Humance vitae라는 사제들에게 보내는 교황의 교서에서 명확히 밝혔읍니다.

이 문서의 기록은 여러분도 그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확고하고 조심스럽게 언급 하였읍니다. 교회는 인구문제에 대해 조급한 해결과 타협을 하도록 하는 어떤 압력도 받아들이지 않읍니다. 교회는 순수한 기술적 면의 해결을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게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신적 성장을 도와주는 데 있읍니다. 다시 단언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이 기여하고 각개인이 책임을 느끼도록 신앙을 통해 도와주는데 있읍니다.

이런 추구로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근본적인 면을 생략하고서 교회의 입장을 밝히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에 신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경제적 사회적인 면

교회는 인구문제의 여러가지 면의 객관적 현실에서 인구문제와 관련된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오늘날도 또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들 문제들은 물론 항상 인간생활과 밀접한 경제적 사회적인 면입니다.

사실 인구문제를 논함에 있어 궁극적인 것은 인간자체입니다. 인간자체의 존재에 대한 토론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은 인지되거나 확인될 수도 있고 또 거부될 수도 있읍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자연을 보존하는데 있어 사람은 자기자신의 주인이며 자기의 판단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그 자신의 가능성과 곤경을 자유로 책임져야 됩니다. (populorum progressio, 34)

어떤 인구문제에 대한 계획도 인간 자체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빈부의 차를 줄이고 차별에 대한 투쟁과 각종 형태의 예속에서, 해방과 그 자신 도덕과 영신의 성장을 이루고 자신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populoruom progr essio, 34)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해로운 모든것이나 생활자체를 반대하는 모든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떤 인구정책도 가정의 참된 역활을 수행하도록 가정의 구성에 안전성과 존엄성을 보증해야만 됩니다. 가정은 인간생활의 현신적 단위이며 사회생활을 이루는 출발점으로서 그 안에서 자기에 대한 존경과 남에 대한 존경은 구별될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가치의 정확한 판단으로 하느님과 그들자신과 가정,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절감하여 그들의 책임을 완수해야합니다. 자녀수에 대한 결정은 그들 자신의 올바른 판단에 달렸으며 외적결정에 좌우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올바로 형성된 양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자연환경의 전체적인 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도덕과 일치된 책임감을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태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f. Humance vitae, 10 : Gaudium et spes, 50, 87)

■ 사회 정의

반드시 생각해야할 중요한 명제중 하나는 사회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의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구상에서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특권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개인이나 집단의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호의적인 투자를 할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부여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확인될 것입니다.

세계인간의 해는 인간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힘을 합치기 위해 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모든 공약들을 새롭게 할것을 제창해야합니다. (cf. populorm progressio, 43)

저개발국의 발달은 미래를 건전한 환경으로 보증하고 인간의 생활을 값지게 하며 이 결과로 인

<20면에 계속>

니다.

부부 중에 하나가 신자가 아닌 경우에 교우인 배우자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해야 하고 신앙에 따라 하느님의 법칙을 준행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장애되는 것을 신자가 아닌분에게도 설명하고 협조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⑤ 부부가 자기들이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받은 은총과 조력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 하는 것을 하느님의 은총과 조력으로써 충분히 알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실망하는 일없이 계속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⑥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기도가 매우 중요 합니다. 기도의 초자연적인 효과 이외에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날 서로 모독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날 그 날에는 낙태시키는 일도 없을것입니다.

⑦ 성직자들도 여러분의 고생을 잘 이해하고 절실히 동정한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에 언제든지 사제들을 찾아가 마음을 드러내고 위로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인간으로 죄악에 빠질 때라도 고백의 성사로 인자하신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생활의 전체를 성화한다면 배란법에 대한 성공을 바랄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전체를 성화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읍니다. 그 목적은 「나자렛」의 성가정의 성화와 행복과 복지를 조장함에 있읍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운동의 목적은 가정 도덕— 즉 부부의 사랑 존경, 부부의 화목과 신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과 양해, 자녀들의 영신적·도덕적·세속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을 권장 하고 가정생활의 은총과 축복을 인식케 하며 될수있는한 자연적인 가족계획도 가르쳐서 모자보건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부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셔서 이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현대 사회의 부패에서 구출하여 거룩한 가정생활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1976년 6월 25일

천주교한국주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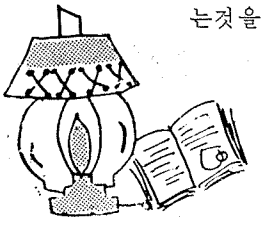
<22면에서 계속>

구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둔화되어지고 따라서 정부나 사회단체는 더욱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정부나 사회단체는 그들의 능력한계내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발달을 적당한 방법들을 채택하므로서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여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과 도덕법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는데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f. Maler et Magistra in AAS, 53 (1961) p 447 : Populorum progressio, 37 : Humance Vitae, 23)

■ 희망사항

형제들이여, 인구의 해에 교회는 한가지 희망으로 기본태도를 정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까지 인류가 당면한 모든문제를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해결해 왔다는 희망적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물론 교회의 이같은 희망은 극히 현실적인데 그 근본이 있읍니다. 더구나 이 모든 희망의 실현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향한 의향을 따라 행동하므로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